

탄소 1번지 전주, 상용화 '속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아이에스동서와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가 탄소복합재 생산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탄소상용화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아이에스동서(주)는 1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아이에스동서 본사에서 탄소섬유 복합과일 기술을 포함한 섬유 복합 건설자재 상용화 실험을 목적으로 원천기술 및 실용화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건설 산업에 적용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기아자동차와 탄소복합재의 자동차 부품 적용을 위한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한 기술원이 탄소복합재 적용분야를 건설산업으로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기술원과 아이에스동서는 기술원이 보유한 첨단장비를 활용해 올해부터 건설산업 분야에 탄소섬유복합재 적용에 대한 공동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아이에스동서는 기술원 상용화 기술센터에 구축된 탄소섬유 와인딩 장비를 활용해 탄소복합재 튜브를 성형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지반다짐용 건설자재에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지반 다짐용 파일에 탄소섬유 복합재 튜브 적용이 가능해지며 내화확성이 뛰어난

고강도 탄소섬유복합재를 적용함으로써 내구성 및 내진성능이 향상돼 건축물의 수명과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원은 이번 업무협약 및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침체된 건설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탄소섬유 수요를 극대화해 전주시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메카임을 각인시킨다는 각오다.

방운혁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은 "조만간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기술원에 구축된 연구개발 인프라를 중심으로 아이에스동서와 같은 완제품 기업과 산단 입주예정인 소재, 중간재, 복합재 성형 기업을 연계해 전주시가 대한민국의 탄소산업 발전을 견인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중국학생과 학부모 등 170여명의 단체관광객이 전라북도의 중국 유일 직항 통로인 군산항을 통해 전북을 방문했다.

“이제는 직항으로 편하게 전북 관광 즐겨요”

지난달에 이어 중국단체관광객 170명 군산항 통해 전북 방문

중국학생과 학부모 등 170여명의 단체관광객이 전라북도의 중국 유일 직항 통로인 군산항을 통해 전북을 방문했다.

군산항과 중국 석도항을 오가는 (주)석도국제해운을 이용한 중국 단체관광객은 지난 1월 150명 이후로 두 번째 단체 방문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해 4월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서 개최된 석도해리 주 6항 운항기념 '전라북도 관광설명회'를 통해 중국청소년 교육여행상품으로 판매된 것으로, 행사 이후 2019년 들어 1, 2차에 걸쳐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어 의미와 관심이 날따라다.

이번 관광객은 전라북도에서 문화체험과 교육, 교류 활동을 목적으로 하북성, 산둥성, 안휘성, 사천성 등 총 4개 지역에서 참가했다.

14일 첫날은 군산항(국제여객센터 미널)에서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환영 행사가 진행됐고, 이후 전북도청 대공영장에서 전라북도 청소년 공

연타과 문화교류공연 행사를 진행했다.

중국 청소년은 전통무용과 노래, 악기 연주 등 35팀이 공연했으며, 전북 청소년은 한류의 대표적 아이콘인 K-pop 안무, 비보잉, 노래 등을 선보여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화합의 무대를 보여줬다.

15일에는 KBS 전주방송국을 견학하고 전북도청으로 이동하여 전라북도 홍보동영상 관람 및 주요정책 등을 소개하는 자리가 있을 예정이며, 전라북도 인터넷방송 '전북생생 TV'에서는 아나운서 뉴스 진행을 체험하고 중국 청소년 기자단의 취재활동을 지원하는 등 직업 체험을 실시한다.

이날 오후에는 한국전통문화의전당을 방문하여 한지뜨기 체험과 한지 위에 전라북도 상징(이성계 어진, 전라북도 CI 등) 그리기 행사 등을 통해 전라북도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시간을 마련

한다. 또한 이들은 전주한옥마을에서 자유시간을 보내게 된다.

한편, 전북도는 봄, 여름 상품으로 지리산과 금강을 연계한 도보여행 상품과 여름방학 기간 이용한 교육 여행상품을 중국단체와 여행사대상으로 홍보 중이다.

전북도의 아름다운 자연자원인 산과 강을 따라 꽃을 볼 수 있는 도보 여행상품은 이미 중국석도해리사와 중국여행사가 중국 현지여행사에서 고객 중에 있다. 또한 중국 산둥성 태권도협회에서는 여름 방학 태권도 연계 청소년 교육여행단이 전북도를 방문할 계획이다.(현재까지 모객 중국학생 150여명)

김희욱 전라북도 관광총괄과장은 "중국관광객은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북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특수목적관광단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군산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여성들이 새로운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전북도, 경력단절여성 취업역량 강화 위한 직업교육 실시

전라북도는 경력단절여성에게 구인 수요가 높은 취업직종에 대한 훈련 과정 운영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와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2019년 직업 교육훈련 45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사무관리, 서비스, 재무·회계 등의 교육을 평균 2~3개월 동안 20시간 내외로 진행 하며, 교육 수료 후에도 자격증 취득, 취업연계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개별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일정에 맞춰 교육생을 공개 모집한다.

총 45개 과정으로 진행될 모집분야

는 △간호조무사양성과정 △기업회계 실무자양성과정 △웹콘텐츠마스터양성과정 △탄소산업분야제조인력 △뷰티네일코디네이터(결혼이주여성) △코딩·드론지도사양성과정 △성장동력산업제조인력양성과정 △생애설계전문기양성과정 △유아감성지도사 등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교육 과정은 간호조무사 및 코딩·드론지도사 양성과정을 비롯해 최근 기업 수요에 맞춰 SNS 및 홈페이지 관리자를 양성하는 웹콘텐츠마스터, 기업회계실무자 양성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인

재를 양성하고, 취약계층인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뷰티네일코디네이터 과정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전북도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사회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북도는 일·가정 균형을 지원하고 더 많은 일자리 발굴로 여성들이 새 일을 찾고 새로운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직업훈련교육 참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새로일하기센터를 방문하거나 전북새로일하기센터(☎ 254-3610)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오늘 100억 규모 전북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설명회 열려

중앙공모사업 · 콘텐츠 제작지원 · 마케팅지원 · 교육사업 등

전북도와 (재)전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2019년 콘텐츠 지원사업 설명회를 진흥원 1층 네트워킹 라운지에서 오늘 개최한다.

진흥원은 매년 14개 시군 및 전북 지역 콘텐츠·IT/CT분야 기업, 문화콘텐츠 관련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콘텐츠 제작 관련 지원 사업은 총 39건 106억으로 분야별로는 콘텐츠 제작지원 19건 89억, 인력양성 12건 10억, 마케팅 지원 8건 7억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외에 중앙공모사업 5건

252억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2019년 사업 목표 및 전략과 진흥원 각 팀별 사업 소개 (공모사업, 제작지원, 창업지원, 교육사업 등) 사업 담당자와 참여자 간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역점추진사업으로 문화기술 연구개발 과제 수주를 통해 문화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선도적으로 기획·지원하여 교부가치 중심의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안동환 전라북도 문화예술과장은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서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ICT스마트 관광·문화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이번 설명회는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등 중앙공모 과제와 함께 콘텐츠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싶은 창업예정자 또는 문화콘텐츠 기업관계자라면 현장 접수를 통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김진성 기자

학교 밖 청소년 실질적 지원 위한 정책마련 '총력'

전북도, 실태 조사 착수

전북도는 1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학교 밖 청소년 상담센터·전라북도 교육청·청소년 보호관찰소·청소년 자립생활관·청소년 비행예방센터 등 약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착수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3월부터 '2019년 학교 밖 실태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6년에 이어 2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전북연구원에

서 주관하며, 이를 위해 전북도는 지난 1월 25일 도 및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실무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조사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구체적인 연구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앞으로 도내 학교 밖 청소년 및 관련기관 종사자 등 약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등을 통해 실시될 예정이며, 전북도는 이를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특성, 학교 중단 관련사항, 생활실태, 정책적 교육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 할 예정이다.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학업중단 등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제도권 밖의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에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과 사회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